

종근당 ‘듀비에’

NASH 동반 당뇨병 환자 지방간 개선



종근당의 새로운 항당뇨병제 ‘듀비에’가 비알콜성간염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듀비에’가 비알콜성지방간(NASH)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지방간 개선과 혈당강하 효과를 입증한 새로운 임상결과를 미국당뇨병학회(ADA)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전 세계 당뇨병 전문의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연세의대 이병완 교수팀은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제76회 ADA’에서 국내 개발 당뇨병 치료 신약 듀비에(성분명: 로베글리타존)의 이런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내 5개 기관에서 비알콜성지방간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환자 43명을 대상으로 ‘듀비에’의 지방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결과에 따르면 24주간 듀비에를 투여한 전체 환자 중 65% 환자들의 간 내 지방량이 감소했다. 지방간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한 CAP수치가 평균 5% 감소해 지방간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간 손상 지표인 AST·ALT·gamma GTP의 수치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되는 등 간 기능개선에 효과를 보였다.

환자들의 혈당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인 당화혈색소가 0.9%감소됐고, 중성지방(TG)은 감소한 반면 몸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이 증가되는 등 혈당강하와 이상지질혈증 개선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임상에 참여한 이용호 교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10명 중에 7명이 비알콜성지방간을 동반하고 있다”며 “이번 임상결과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에게 듀비에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MP저널